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종원 예비후보, 조국혁신당 정철원 예비후보, 무소속 최화삼 예비후보가 26일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기범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주 vs 혁신 vs 무소속 3자 대결... 표심 오리무중

6·3 지선 현장을 가다 <4> 전남 담양군

정철원, 행정 연속성 강조... 인물중심 경쟁력 승부 박종원 "예산 1조 시대"... 미래 100년 로드맵 제시 최화삼, 재정 건전성·경제 활성화 등 밀착형 공약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선거는 이미 승부가 시작된 상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불과 4%p 안팎으로 당락이 갈린 접전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 이번에는 현직 군수와 민주당 후보에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표심 구조가 더 복잡해졌다. 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이지만 담양에서는 특정 후보로 기울었다는 흐름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다. 재선거를 거치며 한 차례 선택을 경험한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표심은 초반부터 쉽게 열리지 않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 담양군수 선거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군수, 더불어민주당 박종원 후보, 무소속 최화삼 후보가 맞붙는 3자 구도로 전개된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남에서 혁신당 소속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구조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지역 기반을 갖춘 무소속 후보가 합류하면서 단순한 정당 대결로 설명하기 어려운 판이 만들어졌다. 조직력, 인물 경쟁력, 표 분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전형적인 다자 접전 구도다.

정철원 후보는 재선거를 통해 군정에 입성한 이후 1년여의 기간을 '기반 구축'으로 규정하며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인구 확대, 관광객 유치, 산업 기반 확충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높여겠다는 접근이다.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현장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을 앞세우며 인물 중심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 읽힌다. 지역에서는 현직 프리미엄과 인지도가 결합된 독자적 지지층이 형성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후보 측은 특히 관광과 농업, 생활 인프라를 묶은 지역 발전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광객 유입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기존 군정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도다. 재선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추진된 사업의 체감도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를 '완성의 시간'으로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지고 있다.

박종원 후보는 민주당 공천을 확보하며 '탈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험과 재정 운용 능력을 강조하고, 전남·광주 통합 흐름 속에서 담양을 성장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 1조원 시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대형 사업 유치와 재정 확보 역량을 차별화 포인트로 설정했다. 박 후보는 산업과 교통, 관광, 농업을 연계한 구조적 확장을 통해 재정 규모를 키우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와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등 중앙 재정 확보 방안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형성된 내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조직 결집이 늦어질 경우 초반 기세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소속 최화삼 후보의 존재는 이번 선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지방의회와 지역 금융기관을 거머쥔 기반을 토대로 일정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고, 다자 구도에서 5~10%대 득표만으로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정 후보를 앞세우기보다는 양측 지지층 모두를 포섭하며 표 분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최 후보는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재정 건전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스마트농업, 자치지구 설치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며 기존 정당 구도와 차별화된 선택지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다자 구도에서 일정 지지율만 확보해도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막판까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담양의 표심은 오리무중 상황이다. 읍내 상권과 주요 생활권을 중심으로 접촉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좀 더 보고 결정하겠다"는 반응이 반복된다. 재선거 당시 빠르게 쏠렸던 표심과 달리, 이번에는 후보별 공약과 향후 지역 변화 가능성을 비교해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현직의 안정성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새로운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표심은 분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당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후보 개인의 추진력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조직력과 정당 지원을 중시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해 표심은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

다. 이런 흐름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당 변수 역시 단순하지 않다. 민주당은 여전히 지역 내 조직 기반이 견고하지만 경선 후유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면 혁신당은 정당 지지세보다 현직 군수 개인의 경쟁력에 기대는 구조다. 여기에 무소속 후보가 어느 지지층을 더 잡으려하느냐에 따라 전체 판세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담양군수 선거는 초반부터 세 축이 균형을 이루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조직력, 인물 경쟁력, 표 분산이라는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특정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선거 막판까지도 표심이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누가 더 표를 얻느냐보다, 누가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인다"며 "지금 흐름이면 투표 직전까지도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 광주시당, 27~28일 선거구별 1명씩 추가 선출

민형배 "여성 인권,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20주년 기념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된 광역의원 선거구의 추가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과 함께 1차 경선 통과자의 본선 기호 배정을 위한 순위 투표를 진행했다. 추가 경선 지역은 △남구 1선거구 △북구 1선거구 △북구 2선거구 △광산 3선거구다. 선거구 개편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의원 정수가 1명씩 늘었다. 2차 경선은 중대선거구 지역 1차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패자부활전'이다. 광주시당은 지난 24~25일 후보자 공고와 접수를 마무리했다. 2차 경선은 1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100%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패자부활전을 통해 추가 선출된 후보자는 각 중대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중 가장 후순위 순번을 부여받는다. 이와 별도로 본선 기호 배정을 위한 순위 투표도 2차 경선과 같은 날 이뤄진다. 기존 6개 선거구의 1차 경선 1위를 차지한 공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선거구별 가·나·다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권리당원 투표로 정해진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1차 경선을 통해 19개 선거구(단수 추천 서구 3선거구 제외)에서 후보를 확정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형배 후보는 최근 광주 서구 더파크림에서 열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강조했다. 민 후보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가 있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인권지원센터가 20년 동안 여성인권의 가치를 지켜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랜 시간 여성 인권 현장에서 헌신해 온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형배 후보는 "인권은 가장 가

까운 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살피는 것이 인권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성매매 현장상담센터 '언니네' 활동으로 시작해 이듬해 사단법인으로 창립, 20년간 지역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후공정 산업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

국힘 이정현 통합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후공정 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정현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전남은 더 이상 원료만 제공하고 분공정에서 밀리는 지역이 아니다"며 "마지막 공정을 가져오면 일자리도, 소득도, 산업도 바뀐다"고 주장했다. 후공정은 조립·가공·검사·패키징·테스트·물류 등 완제품 직전의 핵심 단계다. 그는 "후공정은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핵심 단계"라며 "다양한 산업의 후공정을 통해 광주의 경제 지평을 바

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후보는 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했다. 첨단 패키징, 테스트, 검사, 냉각부품, 전력반도체 모듈 조립을 집적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AI 반도체 테스트센터와 분산형 반도체 산업 유치도 추진한다. 이차전지와 미래차 후공정 산업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구체·양극재 가공, 셀 패키징, 모듈팩 조립,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광양만권 7개 단산을 연결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이차전지 후공정 산업벨트를 완성

한다는 전략이다. 전장부품, 정밀가공, 센서·라이다, 모듈 조립, 시험·인증 기능을 확대해 광주 완성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차 후공정 허브 구축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철강-에너지 구조물 산업 육성, 정밀화학 및 소재 분야에 대한 후공정 산업으로의 전환, 우주항공 후공정 클러스터 조성, 농수산식품의 후공정 혁신을 제시했다. 이정현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 발전특구 확대, 법인세 감면 등의 제도 혁신"이라며 "광주·전남을 만드는 지역이 아니라 돈을 버는 지역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생예산 삭감 시도, 강진군민이 심판"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사진)가 최근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민생예산 삭감을 시도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차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와 통하게 집행해 왔던 추경과 민생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강진군민을 외면한 것"이라며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을 외면한 반지방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 당시 '농어촌 기본소득'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증액안을 두고 '선거용 퍼주기'라며 반대했던 점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차 후보는 그동안의 정책 기조 역시 지역 격차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 지방대와 연구개발 예산의 수도권 편중, 지역화폐 예산 축소 시도 등을 사례로 들며 "이 같은 정책 흐름이 계속되면 농어촌 지역의 기반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예산을 지키고 확대할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 축소 논리를 따를 것인지 군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민펀드로 깨끗한 선거 치르겠다"

명창환 여수시장 예비후보

조국혁신당 명창환 여수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시민 참여형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시민펀드'를 출시하고 오는 27일부터 모집에 들어간다. 명창환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시민펀드는 시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선거 이후 약정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목표 금액은 1억원이며, 약정 이율은 연 3.0%다. 참여는 3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명 예비후보 측은 펀딩 금액을 선거 이후 선거비용 보전

금으로 총당에 오는 8월 10일 이내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시민펀드는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교사 등도 당원 등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명 예비후보는 "시민펀드는 단순한 자금 모집을 넘어 시민이 직접 정치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라며 "여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깨끗하고 당당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